

유방암 수술 후 유방 암 여성 환자의 의생활 조사: 유방 보존술과 유방 전절제술을 받은 대상자간의 비교

Survey of Clothing Behavior for Breast Cancer Women After Surgery: Comparison Between a Breast-Conserving Surgery Group and a Mastectomy Group

오희경[†]
Hee-Kyung Oh[†]

송실대학교 공과대학 유기신소재·파이버공학과
Department of Organic Materials & Fiber Engineering, Soongsi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clothing habits between a breast-conserving surgery group (68 patients) and a mastectomy group (45 patients). In common, both parties expressed that they did not want to conspicuously display their altered body shape from the surgical procedure, and they also confirmed that they did not want to be treated as breast cancer patients by others. On the other hand, a mastectomy group significantly preferred clothes, bras and breast prostheses which enhance the body silhouette in comparison to the patients who received breast-conserving surgery. However, the patients who received breast mastectomies reported that the bras and breast prostheses available have been expensive with low emotional satisfaction, calling for particular need in specialized clothing for female patients who undergo breast surgery. Hence, this research to further the development of clothes, bras and breast prostheses for Korean women who must undergo breast surgery would be effective in helping to improve body image and quality of life in these women.

Key words: Breast Cancer, Body Image, Breast-Conserving Surgery, Mastectomy, Fashion Therapy

요약

본 연구는 유방 보존술(68명)과 유방 전절제술(45명)을 받은 대상자의 수술 후 심신의 변화에 따른 의생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공통점으로는 유방 절제 수술로 변형된 체형을 노출시키고 싶어 하지 않았고, 타인에게 본인이 유방암 환자인 것을 알아채주어 배려 해 주기를 바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유방 절제 범위가 큰 유방 전절제술의 대상자는 신체 이미지의 고양을 위하여 절제된 유방의 보완이 가능한 의복 및 보조물(인조 유방)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유방 전절제술을 받은 대상자를 위한 브래지어나 인조유방은 고가임은 물론, 낮은 감성 만족도를 나타내었고, 특히 유방암 수술을 받은 대상자들을 위한 전문 의복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향후, 유방 절제 수술을 받은 한국 여성 대상자를 위한 치유 복장, 브래지어나 인조유방 등의 개발에 있어, 이와 같은 감성 조사가 효과적인 정보 자료로 사용 되어 신체이미지 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주제어: 유방암, 신체 이미지, 유방 보존술, 유방 전절제술, 치유 복장

[†] 교신저자 : 오희경 (송실대학교 공과대학 유기신소재·파이버공학과)
E-mail : ohk@ssu.ac.kr
TEL : 02-828-7048

1. 서론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연보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1위는 암이다. 전체 사망자 중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1983년 11.3%에서 2013년 28.3%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오늘날 4명 중 한 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에게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암은 갑상선 암으로, 유방암, 대장암, 위암, 폐암, 자궁경부암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National Cancer Information Center, 2014). 특히 서구인의 암이라 여겨지던 유방암은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여성 암 발생 빈도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연도별 유방암 연령 표준화 발생률을 보면 2012년 10만명 당 52.1명으로 15년 전에 비해 무려 4배나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유방암 5년 상대 생존율을 살펴보면, 1996~2000년에는 83.2%였으나 2008~2012년에는 91.3%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연령 표준화 사망률은 10만명 당 6.1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높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다(Korean Breast Cancer Society, 2014).

그런데, 우리나라의 유방암 여성 환자의 경우, 가정과 사회에서 중심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40대가 전체 환자의 34.9%를 차지하고 있으며, 폐경 이후 유방암이 높게 발생하는 서구와는 다르게 더 이른 나이에 유방암 환자가 발생한다는 차이를 갖고 있다. 서구에 비하여 10여년 정도의 호발 연령이 어린 한국의 유방암 여성 생존자들은 생존을 이유로 유방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절제하게 되는데, 이들의 신체 이미지에 의한 삶의 질 문제는 서구에 비해 더욱 주의를 요하고 있다(Cho, 2009).

유방 절제 수술을 받은 대상자의 경우 유방 절제술을 경험하지 않은 중년 여성의 경우보다 낮은 신체 이미지를 갖고 있음(Park & Choi, 2008)은 물론,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병하여 생존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치료 및 재활의 두려움을 안고 살게 된다. 이와 더불어 유방암 절제 수술 대상자의 수술 후 경과기간에 따른 신체 이미지는 수술 후 1년 미만일 때 가장 낮으나, 90%의 재발생률이 나타나는 5년의 시간이 경과된 이 후에 다시 되풀이 되어 낮아지는 양상이 나타났다(Cho et al., 2009). 이에 유방암 수술 후 1~

5년 동안 회복되었던 신체 이미지가 5년 생존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 및 긍정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여성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여성다움과 아름다움, 모성을 대표하는 유방의 상실은 신체 이미지를 저하시키고, 부정적인 신체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장기간 동안 갖게 하여,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매력 상실 등과 같은 자아 존중감의 저하 및 우울증과 수치심으로 인한 심리적 손상에 의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 된다(Jeong & Park, 2007). 유방암 절제 수술을 받은 대상자들은 자신의 우울 정서가 높아지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심하게 야기되기 때문에(Ha, 2011; Kim, 2010; Kim et al., 2006; Lee, 2007) 유방암 절제 수술을 받은 대상자들이 삶의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해 긍정적 정서를 높일 수 있는 신체 이미지 증진의 방안 마련이 중요한 지표로 되어 연구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Kwon & Yu, 2012; Hwang & Yi, 2014; Kawabata, 2012).

현재까지 유방암 환자를 위한 의생활 연구는 절제된 유방의 보호와 보완을 위한 브래지어 및 인조유방 실타 및 개발에 관련된 연구(Asami, 2008; Ichikawa, 1984; Lee & Choi, 2001, 2002; Kawabata, 2011; Suzanne, 2003), 질적 연구를 통한 유방암 생존자의 의복 소비 특성에 관한 연구(Rlee, 2014), 유방암 수술 후 의생활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Kawabata, 2012; Yatagai, 2010)가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유방 보존술과 유방 전절제술을 받은 대상자의 의생활 특성을 각각 나누어 조사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최근 조기 검사, 진단방법, 의료기술의 발달로 유방 보존술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여전히 유방 전절제술을 받는 유방암 환자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환자를 위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복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방 절제술을 받은 대상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먼저 유방 보존술과 유방 전절제술을 받은 대상자의 집단 간의 수술 후 심신의 변화와 의생활 감성 평가, 브래지어, 인조유방의 조사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향후 유방암 절제 수술을 받은 대상자를 위한 적절한 기능성 의복 및 브래지어, 인조유방 개발로 신체 이미지를 고양함에 있어 그들의 감성을 포용하는 치유 복장(Fashion Therapy) 개발에 일조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유방암 수술

암은 세포의 유전자에 변화가 일어나 성장이 조절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유방암의 경우, 종류가 다양하여 유방암 진행에 따라 크게 0기, 1기, 2기, 3기 4기의 병기를 구분한다(National Cancer Information Center, 2014).

유방암 수술 방법은 크게 유방을 보존할 수 있는 부분 절제의 유방 보존술, 유두를 포함한 유방 전체를 제거하는 유방 적출 및 유방 아래에 존재하는 근육을 제거하기도 하는 유방 전절제술, 그리고 유방을 새로 만들어 주는 유방 복원술로 나눌 수 있다. 과거에는 유방암의 진행도와 상관없이 유방 전체를 들어내는 유방 전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을 기본치료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유방암 조기 발견과 함께 유방 보존술 후 미세 병소 제거를 위한 방사선 치료를 하는 방식이 보편화 되었다(Lee & KBS, 2010). 방사선 치료법 등의 보조 요법으로 피부변화, 피부염, 탈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신체이미지와 신체적 불편감 (Han & Park, 2014)이 야기 되에도 불구하고, 유방 보존술이 유방 전절제술의 재발률과 생존율에 차이가 없고(National Cancer Information Center, 2014) 절제 부위의 최소화로 외모 손상이 적어 외과적 치료와 미용적 결과에 더 만족을 주는 등의 이유로 1996년 18.7%에서 2012년 67.2%로 급증하였다 (Breast cancer white paper, 2013). 한편, 수술 후에도 림프 부종이라는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성적 미용효과를 극대화 하여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는 유방 복원술의 시행도 최근 계속 늘어나고 있다 (Lee & KBS, 2010).

2.2. 신체 이미지

메를리 몽띠(Maurice Merleau-Ponty)(as cited in Kim, 2004)는 나와 타자의 ‘거리속의 가까움 (Proximity through distance)’ 사이에 나의 몸은 내 것이면서 동시에 타자의 것인 “몸의 형이상학적인 구조”를 발견하였다. 즉 나의 몸은 타자를 위한 대상이

면서 몸 의식의 주체로, 내 의식의 중심에 타자의 존재와 시선이 이미 깊숙이 들어와, 타자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상호작용하며 이상적 몸 이미지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에 신체 이미지란 자신의 몸을 통해 타인 및 사물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으로, 신체 구조의 특성, 자아, 그리고 사회계층 및 문화, 성(gender) 등을 포함한 신체적 자아개념이라 할 수 있다(Kwon, 1999). 특히 여성에게 있어, 신체 이미지란 여성성과 매력을 포함한 중요한 개념이다. 유방은 여성에게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암으로 인한 유방 절제는 신체 이미지의 변형을 초래하며, 신체 일부를 절단한다는 것 이상으로 여성성과 모성의 상실감을 경험하며, 여기에 신체적 불편감의 증가는 신체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Han & Park, 2014). 신체만족도는 신체의 여러 부분이나 신체 기능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만족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신체의 각 부위에 대한 이상적인 신체 이미지가 중요할수록 의복 혜택을 통해 신체 만족을 유지 또는 고양시키려 한다(Hwang, 1997).

2.3. 치유 복장

이인자 외(Lee, et al., 2001)는 패션 세라피란, 의상을 통해 정신적·육체적으로 안정감을 증진시키고, 외모를 향상시켜, 손상된 자아 존중감과 개인의 부정적 정서를 회복시켜 치료 효과를 증진하는 보조적 요법이라 하였고 의복 치료로 번역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체간부를 덮는 피복을 의미하는 의복 보다 더 넓은 의미의 복장으로 번역하였다. 복장이란 인간이 착용하여 완성하는 옷차림으로 착용에 의해 인격화 되어진 피복의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Miyoshi, 2001). 또한, 치료보다는 정신적 건강 회복의 의미를 담은 치유로 번역하여, 패션 세라피를 치유 복장으로 명명 하였다. Ryan(as cited in Kang, 1996)이 의복은 각 개인의 신체 이상을 포함한 신체 이미지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 것처럼 적절한 의복은 신체적 결함까지도 이상적인 형태로 보완하여 긍정적 신체 이미지를 회복하는데 기여함은 물론, 심리적 욕구를 만족하여 자기 존중감을 되찾는데 기여한다. Chung(2006)의 연구에서 장애 여성의 경우 기성복에 대하여 불만족을 나타냈지만 기능성 의복에

대하여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처럼, 다양한 기능성 의복의 개발이 매우 시급하다. 자아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심리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멋진 옷차림을 원하는 것은 누구나 동일하지만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의복의 기능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멋진 옷차림을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Iwanami, 1998). 유방암 절제 수술을 받은 대상자들은 절제된 유방 부분이 고려된 기능성뿐만 아니라 심미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치유 복장 개발이 요구된다. 이러한 치유 복장의 착용으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받지 않음은 물론 패션 생활에서 소외되지 않고, 정서적 안정감을 갖게 되어 긍정적이고 원만한 대인관계로 정상적인 삶의 기회가 제공되어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Kim, 2010; Kwon, et al., 1989).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연구 대상자 보호심사위원회(IRB No.1408/002-009)의 승인을 받고, 수도권 지역의 유방암 절제 수술을 받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조사하였다. 조사 방법은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취지를 설명하여 서면동의를 얻은 후, 질문지를 나누어 주어 작성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총 142부의 자료를 배포하여 회수된 설문지는 125(88%)부였으며, 부실 기재한 설문지를 제외한 설문지 중 113부(80%)를 본 연구의 자료로 분석하였다.

3.2. 연구 내용 및 분석 방법

설문지의 내용으로 유방 절제 수술을 받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선행연구(Kim, 2010; Yatagai, et al., 2010)를 바탕으로 본 연구 대상자에 맞도록 보완, 수정하여 현재의 연령, 수술 경과년도, 수술 시 유방암의 진행정도, 현재의 건강 상태 및 통증 유무에 대하여 구성하였다. 유방 보존술과 유방 전절제술을 받은 대상자간의 수술 후 변화된 심신의 차이(13문항)

와 수술 후 외출복 선호도에 대한 내용(26문항)은 선행연구(Kawabata & Yatagai, 2012; Rlee, 2014; Yatagai et al., 2010)를 참고로 하여 구성하였다. 이 문항들은 Likert 척도의 5점 척도로(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약간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작성하였다. 브래지어와 인조 유방의 착용 실태조사 문항은 선행연구(Lee, 2001; Choi, 2001; Choi 2002)를 바탕으로 구매 가격과 구매 빈도, 구매 및 착용 만족도에 대해 구성하였다. 기타 인조 유방을 착용하지 않는 이유와 불만사항 및 대용품 등에 대하여서는 개방형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2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제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한 후, 대상자의 심신 변화의 정도, 브래지어와 인조 유방에 대한 유방 보존술과 유방 전절제술을 받은 대상자들 간의 도출된 집단 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선호하는 외출복에 대해서 요인 분석 후 요인 값을 이용하여 유방 보존술과 유방 전절제술을 받은 대상자의 집단별 t-test를 실시하였다.

4. 연구 결과 및 논의

4.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113명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유방 보존술을 받은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56.5(SD=±6.27)세로 50대가 60.3%로 가장 많았고, 유방 전절제술을 받은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59.6(SD=±5.26)세로 60대 이상이 53.3%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수술 경과 년 수 경우, 유방 보존술을 받은 대상자는 평균 7.6(SD=±6.87)년으로 6~10년 사이가 31명(45.6%)으로 가장 많았다. 유방 전절제술을 받은 대상자의 경우, 평균 연령은 9.5(SD=±5.56)년으로 11년 이상의 대상자가 18명(40%)으로 가장 많았으며,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불과 15년 전만 해도 유방암 환자들의 80% 이상이 유방 전절제술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유방암의 조기 발견이 높아지고, 수술 방법이 발달되어 수술 방법 선택

Table 1. Differences in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surgery types

Variable	Conserving Surgery (n=68)		Mastectomy (n=45)		T-value
	n(%)	n(%)	n(%)	n(%)	
Current age	≤40's	6 (8.8)	3 (6.7)		-2.148*
	50's	41 (60.3)	18 (40.0)		
	≥60's	21 (30.9)	24 (53.3)		
Time since surgery (years)	Within one	7 (10.3)	4 (8.9)		-2.212*
	2~5	19 (27.9)	8 (17.8)		
	6~10	31 (45.6)	15 (33.3)		
	≥11	10 (14.7)	18 (40.0)		
	Not provided	1 (1.5)	-	-	
Stage	0	4 (5.9)	5 (11.1)		-1.852
	I	31 (45.6)	12 (26.7)		
	II	30 (44.1)	19 (42.2)		
	III	1 (1.5)	7 (15.6)		
	IV	-	-	1 (2.2)	
Physical condition	Very healthy	18 (26.5)	15 (33.3)		.517
	Better healthy	25 (36.8)	14 (31.1)		
	Normal	21 (30.9)	13 (28.9)		
	A little bad	3 (4.4)	2 (4.4)		
	Not provided	1 (1.5)	1 (2.2)		
Pain	Not at all	24 (35.3)	15 (33.3)		-.277
	Some	43 (63.2)	29 (64.4)		
	Highly pain	1 (1.5)	1 (2.2)		

* p<.05

에 있어 환자의 정서적인 측면이 고려된 유방 보존술을 60% 이상 환자들이 받고 있다는 선행 연구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유방 전절제 수술을 받은 대상자의 연령과 수술 경과 년수가 유방 보존술을 받은 대상자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유방암 진단 시 병기의 경우, 유방 보존술을 받은 대상자는 1기가 31명(45.6%), 2기가 30명(44.1%) 순으로, 유방 전절제술을 받은 대상자는 2기가 19명(42.2%), 1기가 12명(26.7%), 3기가 7명(15.6%) 순으로 유방 전절제술을 받은 대상자의 병기가 더 높은 경향이 있었으나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 밖에도 현재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양측 각각 약 93% 이상이 보통 이상으로 건강이 좋은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통증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약 65% 이상이 통증을 느낀다고 응답하였고,

건강상태와 통증에 있어서도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4.2. 유방 보존술과 유방 전절제술을 받은 대상자 간의 변화된 심신의 차이

유방 보존술을 받은 대상자와 유방 전절제술을 받은 대상자 사이의 수술 후 심신의 변화에 따른 차이에 대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유방 보존술을 받은 대상자와 유방 절제술을 받은 대상자의 심신의 변화에 있어 각각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은 ‘유방의 좌우 형태가 다르다(유방 보존술: M=3.7, SD=±1.052, 유방 전절제술: M=4.44, SD=±0.893)’로 동일하였다. 한편, 가장 낮은 점수의 응답은 ‘타인이 본인의 유방암 환자인 것을 알아봐주어 배려해 주길 바란다(유방 보존술: M=2.10, SD=±1.143, 유방 전절제술: M=1.82, SD=±1.284)’로 동일하였으나 유방 전절제술의 경우, ‘보조물(유방 패드 등)이 없어도 외모를 보며 만족한다(M=1.82, SD=±1.134)’ 또한 낮게 응답하여, 유방 전절제술을 받은 대상자의 경우, 외모의 만족을 위한 보조기(유방 패드)의 기능이 확인되었다.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을 살펴보면, 유방 전절제술을 받은 대상자가 유방 보존술을 받은 대상자보다 유의하게 높은 차이를 나타낸 항목은, ‘① 유방 좌우의 형태가 틀리다, ② 수술한 부위의 체형변화가 많다, ③ 수술 후 신체 변형을 커버할 수 있는 옷을 선호한다, ④ 수술 부위를 의복으로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⑤ 수술 부위를 타인이 알아보는 것이 싫다, ⑥ 유방 절제 수술 후 심리적으로 허전하다, ⑦ 유방 절제 수술 한 이후 미적 상심이 크다, ⑧ 타인이 본인의 수술 부위 체형변화에 대하여 알아본다, ⑨ 보조물(유방 패드 등)을 넣어야만 체형의 변화를 커버 한다, ⑩ 좌우 똑같이 보이는 대칭 디자인의 의복을 선호한다’였다. 반대로 유방 전절제술을 받은 대상자가 유방 보존술을 받은 대상자보다 유의하게 낮은 항목은 ‘⑪ 보조물(유방 패드 등)이 없어도 외모를 보며 만족한다’이다. 이로써, 유방 전절제술을 받은 대상자들이 유방 보존술을 받은 대상자들보다 더 외형적인 체형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감성적으로도 상심을 크게 느끼며, 의복을 활용하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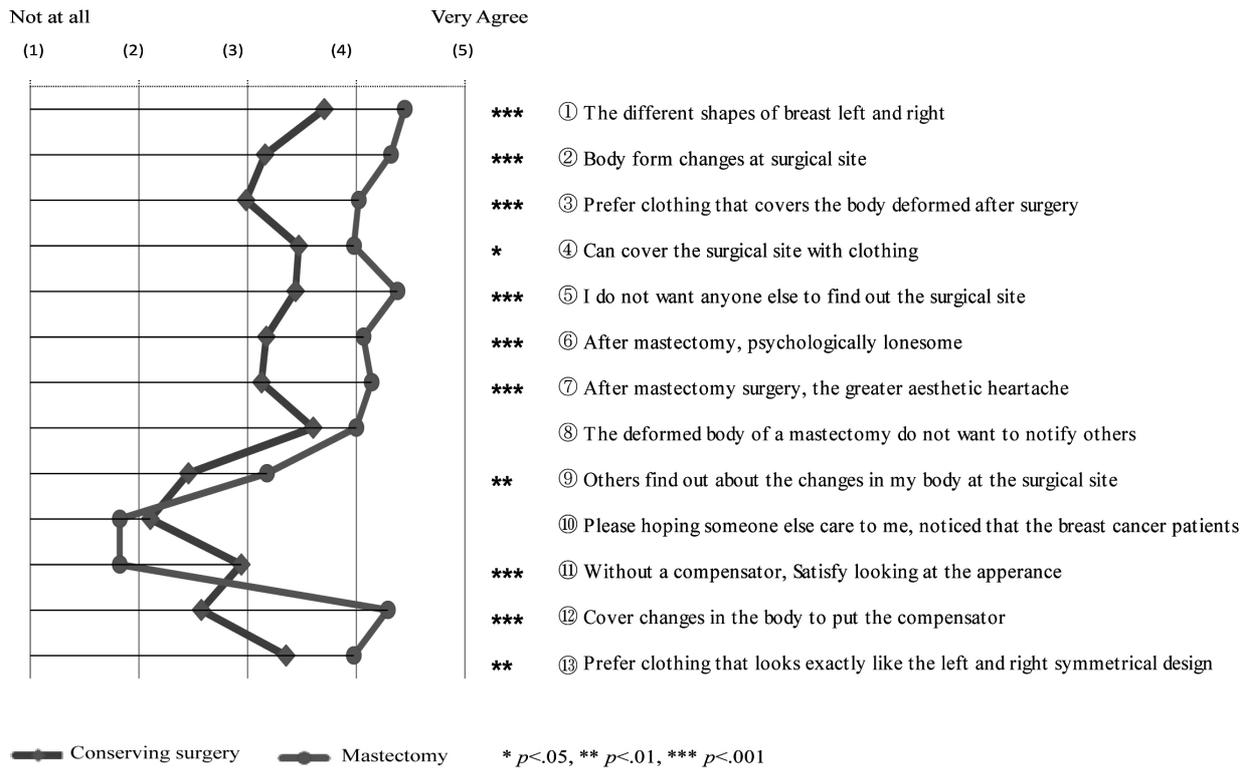


Fig. 1. Differences of emotion and physical satisfaction between two surgery types

된 체형을 보완할 수 있는 의복을 선호하며, 특히 보조물(유방 패드 등)은 체형 변화를 커버하기 위한 중요한 보완 도구로 확인되었다. 한편,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항목으로 ⑧ 유방 절제 수술의 변형된 체형을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에서는 유방 보존술과 유방 전절제술 대상자들이 <그렇다>의 경향을 나타내었고, ⑩ 타인이 본인이 유방암 환자인 것을 알아 봐주어 배려해 주길 바란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로써, 유방암 수술 방법과 관계없이 유방암 절제 수술을 받은 대상자는, 본인이 유방암 절제 수술을 받은 것을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하였다. 더욱이, 본인이 유방암 환자인 것을 알아 봐주어 배려해주는 것을 바라지 않는 감성이 확인되었다.

4.3. 의복의 선호도에 대한 요인분석

유방암 절제 수술을 받은 대상자의 외출복에 대한 선호를 알아보기 위하여 주축요인추출(principal axis factoring)을 적용한 요인분석의 결과는 Table 2와 같

다. 표본의 적절성을 측정하는 KMO 값이 .763이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1402.335(df=276, $p < .000$)로 요인구조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유치(Eigen Value) 1이상을 충족시키는 요인은 7개가 추출되었으나, 5개 요인을 제외하고는 설명 변량이 미미하여 스크리 도표 분석 결과를 고려 한 후, 본 연구에서는 5개 요인을 선정하였고, 회전된 성분행렬의 결과, 전체 변량은 60.25%를 설명하였다.

제 1요인은 <의복의 긍정적 효과>로 명명하였는데, 입는 옷에 따라 외모가 달라지며, 옷을 잘 입으면 당당해지고,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아져 수술 후 옷차림에 더 신경을 쓰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의 옷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 2요인은 <활동이 편한 의복 선호도>으로 명명하였는데, 활동에 불편함이 없는 여유로운 옷을 선호하며, 입고 벗기가 편리하며,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의복의 선호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 3요인은 <유방암 수술 부위 보완을 위한 의복>으로 명명하였는데, 수술 후 신체 변형을 커버할 수 있는 옷의 선호와, 타인이 유방암 절제 수술을 받은 대상자인 것을 알 수

Table 2. Breast Cancer Patient's Clothing Preference

Factor	Item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factor 5
Positive effect of clothing	The appearance is dependent on clothes to wear	.878	.095	.172	-.027	.139
	Well-dressed, it will gain confidence in front of others.	.855	.175	.123	.111	.096
	Praise about own clothes makes me feel good.	.814	.142	.031	.098	.002
	Plays an important role in our daily life is dressed	.722	.301	.325	-.067	.101
	Pay more attention to attire after surgery	.630	.131	.055	-.150	.131
Comfortable clothing preferences	Prefers a relaxed clothes without discomfort to the activity	.126	.824	.049	-.002	.241
	Prefer casual clothes even when wearing a long time	.176	.778	.216	-.001	-.035
	Prefer easy wear and removable clothes	.257	.710	.297	-.096	.090
	Prefer clothes that can easily be worn with little effort	.212	.654	.335	-.086	.211
	Prefer clothes that can feel emotionally secure	.306	.583	-.052	.151	.282
Clothing preferences for the breast cancer surgical cover	Prefer clothing that covers the body deformed after surgery	.192	.229	.754	-.195	.256
	Prefer to design other is not found to be breast cancer	.184	.082	.723	.248	.120
	The surgical site may be covered by clothing	.382	.282	.657	-.059	.163
	About clothing purchases, something changed after surgery	.043	.126	.653	-.311	.101
Unchanging clothing styles	Clothing style was changed to hide the surgical site	.089	.179	.531	-.265	.406
	Pursuing the same clothing styles before surgery	.022	.015	-.076	.844	-.106
	An article of clothing prior to surgery now still enjoy wearing	.043	.084	-.134	.731	-.339
Need specialized clothing for breast cancer patients	Prefer to be very fitting to body modification that indicates the clothes	.002	-.266	-.107	.646	.180
	I want to buy clothes been designed for breast cancer patients	.131	.181	.242	-.171	.878
	The shop is required for patients with breast cancer	.191	.240	.245	-.065	.828
Eigen value		3.68	3.17	3.06	2.40	2.15
Cumulative		15.34	28.56	41.31	51.31	60.25

없는 디자인을 선호하고, 수술 부위를 가리기 위하여 의복 구매에 대한 변화가 있는 내용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 4요인은 <변함없는 의복스타일>로 명명하였는데, 수술 전에 입던 의복을 수술 후에도 즐겨 입고 있으며, 수술 전과 동일한 의복스타일을 입으며, 신체 변형을 나타내는 의복을 즐겨 입는다는 내용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5요인은 <유방암 절제 수술을 받은 대상자를 위한 전문 의복 필요성>으로 명명하였는데, 유방암 절제 수술을 받은 대상자를 위해 디자인 되어진 의복을 구매하고 싶으며 유방암 절제 수

술을 받은 대상자를 위한 전문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들의 value 값으로 유방 보존술을 받은 집단과 유방 전절제술을 받은 집단 간의 t-test를 분석한 결과는 Fig. 2~4와 같다. 제 1요인 <의복의 긍정적 효과>와 제 2요인 <편안한 의복 선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게 나타나, 유방 보존술과 유방 전절제술을 받은 대상자 모두 공통적으로 의복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편안한 의복을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3가지 요인에 있어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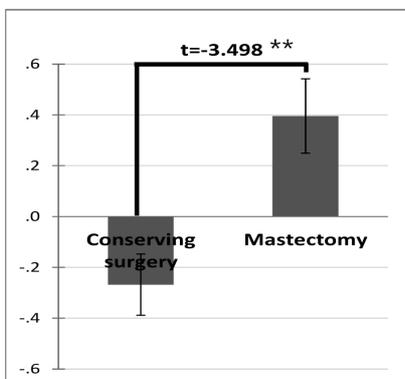


Fig. 2. Factor Score 3 for Analysis: Clothing for Breast Cancer Surgical Cover (Mean±SD,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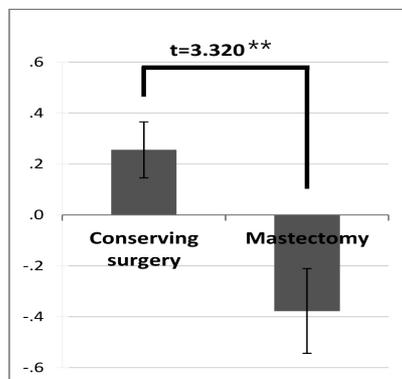


Fig. 3. Factor Score 4 for Analysis: Unchanging Clothing Styles (Mean±SD,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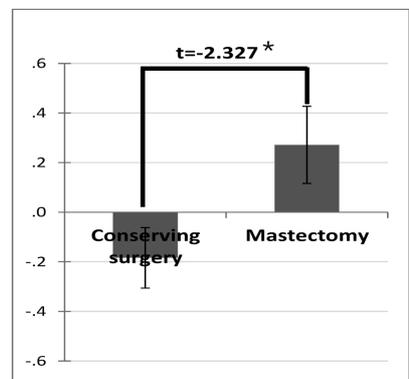


Fig. 4. Factor Score 5 for Analysis: Need Specialized clothing for Breast Cancer Patients (Mean±SD, * $p < .05$)

유방 보존술을 받은 대상자와 유방 전절제술을 받은 대상자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방 보존술을 받은 대상자가 유방 전절제술을 받은 대상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요인은, <변함없는 의복 스타일>의 제 4요인으로 유방 보존술의 집단이 유방 전절제술을 받은 대상자보다 수술 후에도 수술 전과 변함없는 의복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제 3요인 <유방암 수술부위 보완을 위한 의복 선호도>과 제 5요인 <암 절제 수술을 받은 대상자를 위한 전문 의복 필요도>에 있어서는 유방 전절제술을 받은 대상자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Rlee & Lee(2014)는 유방암 수술을 받은 젊은 여성들이 상실된 여성성과 자아 정체감을 회복하기 위하여 의복을 선택하여 욕구를 충족한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방 절제술을 받은 대상자가 유방 보존술을 받은 대상자보다 유방암 수술 부위를 보완할 수 있는 의복을 더 선호하며, 전문 의복에 대한 요구가 더 강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4.4. 브래지어와 인조 유방의 구매 가격 및 구매 빈도

유방 보존술을 받은 대상자와 유방 전절제술을 받은 대상자 간의 브래지어와 인조 유방의 구매 가격의 차이를 나타낸 결과는 Table 3~4와 같다. 브래지어의 구매 가격에 대하여, 유방 보존술을 받은 대상자 중 10만원 이하의 브래지어 구매자는 65명(95.6%)이었으나, 유방 전절제술을 받은 대상자 중 10만원 이하의 브래지어 구매자는 21명(48.92%)이었다. Lee(2000)의 연구에서 당시의 유방 절제 수술을 받은 대상자들의

유방암 환자용 브래지어가 전량 수입된 것으로 최소 가격이 20만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본 연구에서 20만원 이상의 브래지어를 하고 있는 응답자는 모두 10명(9.0%)으로, 그 중 유방 보존술을 받은 대상자 중에는 1명(1.5%), 유방 전절제술을 받은 대상자는 중에는 9명(20.9%)로 유방 전절제술을 받은 대상자가 유방 보존술을 받은 대상자보다 유의하게 고가의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조유방의 구매가격에 대하여, 유방 보존술을 받은 대상자는 11명(16.1%)만 응답하는데, 그 중 20만원 이상의 구매자는 2명(18.2%)으로 대부분 20만원 미만의 인조유방을 착용하고 있었다. 한편, 유방 전절제술을 받은 대상자 중 36명(84.7%)의 응답자 가운데 20만원 이상의 구매자가 30명(83.3%)로, 대체로 20~50만원 사이의 인조유방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인조 유방 구매 가격 또한 유방 전절제술을 받은 대상자가 유방 보존술을 받은 대상자 보다 현저하게 고가의 것을 구매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Lee(2000)의 연구에서 15년 전의 실리콘 인조유방의 가격은 최하 20만원에서 최고 40만원 대에 이르고 있다고 조사된 것과 비교한다면, 본 연구에서 조사된 인조 유방의 가격은 과거와 별반 차이 없는 고가의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유방 보존술을 받은 대상자와 유방 전절제술을 받은 대상자간의 브래지어와 인조 유방 보조물의 구매 빈도는 Table 5~6과 같다. 유방 보존술을 받은 대상자는 브래지어의 구매 빈도에 있어 6개월에 1회 이하가 53명(77.9%), 1년에 1회가 15명(22.1%)이지만, 유방 전절제술을 받은 대상자의 경우, 6개월에 1회

Table 3. Differences of Brassiere Price per month between two surgery types

Price (10000 won)	Brassier		X ²	p
	Conserving surgery (n/%)	Mastectomy (n/%)		
1~3	21 (30.9)	3 (7.0)	40.025	0.000 ***
3~5	27 (39.7)	5 (11.6)		
5~10	17 (25.0)	13 (30.2)		
10~20	2 (2.9)	13 (30.2)		
20~	1 (1.5)	9 (20.9)		
Total	68 (100.0)	43 (100.0)		

*** p<.001

Table 4. Differences of Breast Prostheses Price per month between two surgery types

Price (10000 won)	Breast prostheses		X ²	p
	Conserving surgery (n/%)	Mastectomy (n/%)		
1~5	3 (27.3)	2 (5.6)	18.347	0.003 **
5~10	4 (36.4)	3 (8.3)		
10~20	2 (18.2)	1 (2.8)		
20~30	2 (18.2)	7 (19.4)		
30~50	0 (0.0)	21 (58.3)		
50~	0 (0.0)	2 (5.6)		
Total	11 (100.0)	36 (100.0)		

** p<.01

Table 5. Differences of Purchase Frequency for Brassiere between two surgery types

Month	Brassier		X ²	p
	Conserving surgery (n/%)	Mastectomy (n/%)		
1	3 (4.4)	0 (0.0)	17.650	0.001 **
3	24 (35.3)	7 (16.3)		
6	26 (38.2)	10 (23.3)		
12	15 (22.1)	26 (60.5)		
Total	68 (100.0)	43 (100.0)		

** p<.01

Table 6. Differences of Purchase Frequency for Breast Prosthesis per Month between two Surgery Types

Month	Breast prostheses		X ²	p
	Conserving surgery (n/%)	Mastectomy (n/%)		
1	1 (11.1)	0 (0.0)	15.574	0.029 *
3	1 (11.1)	1 (2.9)		
6	1 (11.1)	0 (0.0)		
12	1 (11.1)	9 (26.5)		
18	1 (11.1)	3 (8.8)		
24	3 (33.3)	3 (8.8)		
36	0 (0.0)	10 (29.4)		
60	1 (11.1)	8 (23.5)		
Total	9 (100.0)	34 (100.0)		

* p<.05

이하가 17명 (39.6%), 1년에 1회가 26명(60.5%)으로 구매 빈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인조 유방 보조물을 구매한 빈도에 대하여도 유의하게 차이가 났다. 유방 보존술을 받은 대상자 중 응답을 한 9명(13.2%)의 구매 빈도는 다양했다. 반면, 유방 전절제술을 받은 대상자의 경우 34(79%)명이 구매하였으며, 3년에 1번이 10명(29.4%)으로 가장 많았고, 1년에 한번이 9명(26.5%), 5년에 1번이 8명(23.5%)순이었다. 그러므로 유방 전절제술을 받은 대상자들은 유방 보존술을 받은 환자보다 수술로 인하여 변형된 체형을 의복을 사용하여 수술 전의 자연스러운 신체 이미지로 보완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브래지어와 인조유방이 부담스러운 고가이며 1~5년에 한 개 정도로 비교적 자주 구매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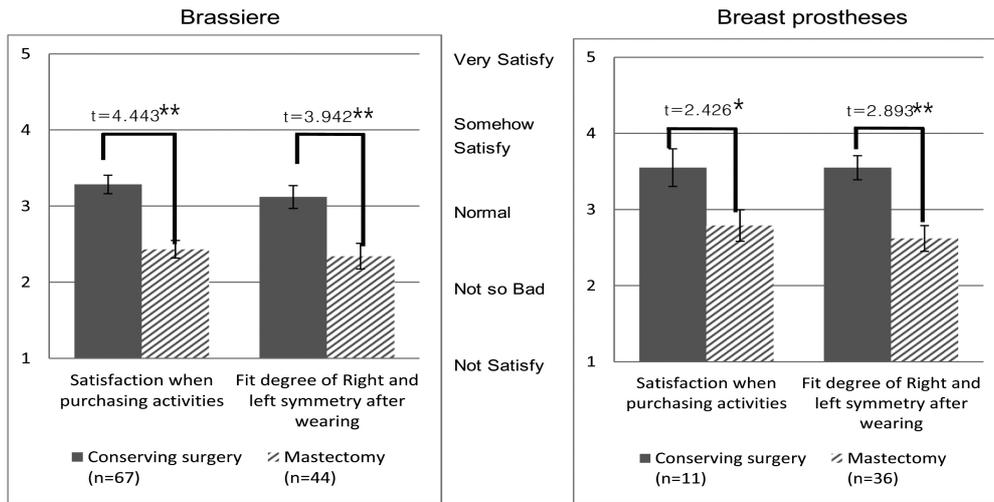
인조 유방의 경우, 유방 보존술을 받은 대상자는 18명(26.5%)만이 착용하고 있었지만, 유방 전절제술

을 받은 대상자는 과반수가 훨씬 넘는 37명(82.2%)이 착용하고 있었다. 이 중 유방 보존술을 받은 대상자는 17명(94.4%)으로 1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국산 인조 유방 보조물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유방 전절제술을 받은 대상자는 12명(32.4%)만이 국산품을 사용하였고, 그 외의 25명(68.4%)은 대부분 외국산을 사용하고 있었다. 인조유방 및 대용품의 소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실리콘, 브래지어를 구매할 때 들어 있는 스펀지 폼(foam), 솜 주머니, 팔 주머니, 쌀 주머니, 거제 손수건, 인조 솜 등을 응답하였다.

유방 전절제술을 받은 대상자가 외국산의 인조 보조 유방을 더 선호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인조유방의 칼라가 본인의 피부색과는 같지 않지만 모양이 변하지 않으며 종류가 많고 품질이 좋으며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한국산은 촉감이 거칠고 금방 볼륨이 꺼지며 외국산과 같이 고품질의 같은 물건이 아직 없다”고 응답하여, 한국인의 감성에 맞으며 저렴하고 고품질의 한국산 인조 유방 보조물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4.5. 브래지어와 인조유방의 구매 및 착용 만족도

브래지어와 인조 유방에 대한 구매활동 시 만족도와 좌우 대칭 일치 정도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결과는 Fig. 5와 같다. 브래지어의 구매 활동에 있어 유방 보존술을 받은 대상자의 만족도는 평균 3.28(SD=±.982)이지만 유방 전절제술을 받은 대상자의 경우 평균 2.43(SD=±.998)로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브래지어 착용 후의 좌우 대칭 일치 정도에 있어서 유방 보존술을 받은 대상자의 만족도는 평균 3.12(SD=±.946)이지만 유방 전절제술을 받은 대상자의 경우 평균 2.34(SD=±1.119)로 유의하게 유방 전절제술을 받은 대상자가 낮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로써, 유방 전절제술을 받은 대상자는 유방 보존술을 받은 대상자보다 브래지어 구매 활동 및 브래지어착용 후 좌우 대칭 일치 정도에 있어서도 낮은 만족도가 확인되었다. Lee & Choi (2001)의 연구에서 보정물을 삽입한 일반 브래지어의 경우 가장 큰 불만을 보정의 기능이 부족하여 활동 시 보정물의 삽입 위치가 변하는 등 양쪽 가슴의 균형이 잘 맞지 않는다고 한 연구결과와, Yatagai, et al(2010)의 연구에서 브래지어에 있어 좌우의 형태나 무게의



* $p < .05$, ** $p < .01$

Fig. 5. Satisfaction Degree of Purchasing Activities and Right & Left Symmetry fit Degree after Wearing for Brassier and Breast Prostheses Between Two Surgery Type

불균형을 느끼는 유방암 여성 환자가 많다는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인조유방에 대한 구매 활동에 있어 유방 보존술을 받은 대상자의 만족도는 평균 3.38(SD=±.870)이지만 유방 전절제술을 받은 대상자의 경우 평균 2.64(SD=±1.018)로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인조 유방 삽입 후 좌우 대칭 일치 정도에 있어서 유방 보존술을 받은 대상자의 만족도는 평균 3.46(SD=±.660)이지만 유방 전절제술을 받은 대상자의 경우 평균 2.47(SD=±1.055)로 유의하게 낮았다. 이로써, 유방 전절제술을 받은 대상자는 유방 보존술을 받은 대상자보다 인조 유방에 대한 구매 활동 및 인조유방 삽입 후 좌우 대칭 일치 정도에 있어서도 낮은 만족도가 확인되었다. 인조 유방의 착용 시기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유방 보존술을 받은 대상자의 경우 17명(25.0%), 유방 전절제술을 받은 대상자의 경우 35명(81.3%)이 응답을 하였다. 유방 보존술을 받은 대상자의 경우 <낮에만 착용 한다>가 7명(41.2%), <외출 시에만 착용 한다>가 3명(17.6%)순으로, 유방 보존술을 받은 대상자의 경우, 전체의 약 1/4만이 인조 유방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낮 동안이거나 외출용으로 착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유방 전절제술을 받은 대상자의 경우 <외출 시에만 착용한다>가 14명(40.0%)로 가장 많았고, <낮에만 착용한다>가 12명(34.3%), <매일 착용한다>가 5명(14.3%) 순으로, 유방 전절제술을 받은 대상자의 4/5가 인조 유방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주

로 외출 시나 낮 동안에 착용하며, 매일 착용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인조 유방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의 질문에 대하여 유방 전절제술을 받은 대상자 4명(11.4%)과 유방 보존술을 받은 대상자 5명(29.4%)이 응답하였고, 인조 유방을 착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무게감 때문에 무겁고 거추장스럽다. 덥고 답답하다. 땀이 찬다. 밀착되었을 때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인조 유방은 환자의 긍정적 신체 이미지의 고양으로 심리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흉상의 신체적 밸런스 부분에도 영향을 끼쳐 인조 유방을 지속적으로 잘 착용한 경우 척추 측만증이 감소하고(Kim, 2011) 유방의 위치를 적절하게 해주어 상지의 활발한 운동성에도 효과가 있다(Yamaguchi, 2001). 그러므로 향후, 외형을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함은 물론, 한국 여성의 피부색과 사이즈, 크기, 무게 등에 한국인의 체형에 적절하며, 한국의 높은 여름 습도 등에도 쾌적한 제품의 연구로 유방암 절제 수술 대상자가 느끼는 불편감을 덜어주어, 지속적으로 쾌적하게 착용할 수 있는 한국인 감성에 적절한 기능적 인조 유방 개발이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유방 보존술과 유방 전절제술을 받은 대상자 간의 수술 후 의생활에 대한 감성의 공통점과 차이

점을 연구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유방 보존술과 유방 전절제술 대상자의 수술 후 심신의 변화에서 공통점은 유방 절제 수술로 변형된 체형을 타인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본인이 유방암 환자인 것을 알아봐 주어 배려해 주기를 바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차이점은 유방 전절제술을 받은 대상자는 유방 보존술을 받은 대상자보다 체형의 변화가 더 클 뿐만 아니라 감성적으로도 크게 상실하고 있으며 의복의 활용을 통하여 외형적인 보완이 가능한 의복을 선호하고, 특히 보조물(유방 패드 등)은 체형 변화를 보완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확인되었다.

둘째, 의복의 선호도에 있어, 유방보존술과 유방 전절제술 대상자의 수술 후 의생활 선호도의 공통점은 의복을 통한 긍정적 효과를 경험하였으며, 활동이 편한 의복을 선호하였다. 한편, 차이점은 유방 보존술을 받은 대상자는 수술 후에도 수술 전과 변함없는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는 데에 반해, 유방 전절제술을 받은 대상자는 유방 절제 수술 부위의 보완을 위한 의복을 선호하였으며, 유방암 절제 수술을 받은 대상자를 위한 전문 의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셋째, 브래지어와 인조유방의 구매가격 및 구매빈도에 있어 유방 보존술을 받은 대상자보다 유방 전절제술을 받은 대상자가 고가의 브래지어와 인조 유방을 구매하고 있으며, 비교적 자주 구매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넷째, 브래지어와 인조 유방의 구매 및 착용 만족도에 있어 유방 전절제술을 받은 대상자가 유방 보존술을 받은 대상자보다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특히 유방 전절제술을 받은 대상자의 경우, 장기적인 건강을 위해 필요한 인조 유방을 착용하지 않는 대상자들도 일부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유방암 절제 수술을 받은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의 일환으로 신체 이미지 증진을 위한 의복의 개발을 위해 유방 절제 수술 후의 의생활에 대한 감성을 조사하였다. 유방암 환자들이 수술 후 자기 존중감을 되찾고 긍정적 대인관계 및 사회 복귀를 위한 효과적이고 기능적인 치유 복장 개발하는데 있어 본 연구의 결과가 효과적인 감성 정보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재정적 보조를 해주신 이

계속 선생님과 결과 분석에 많은 가르침을 주신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박사과정의 오희선 선생님, 서울대학병원 유방암센터의 황은경 간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REFERENCES

- Asami, T. (2008). Epithese and Foundation Garment for Patients with Breast Cancer. *Bulletin of the Japanese Society of Prosthetics and Orthotics*, 24(2), 81-86.
- Breast cancer(유방암). (2014, November 13). National Cancer Information center. Retrieved October 26, 2015, from http://www.cancer.go.kr/mbs/cancer/jsp/cancer/cancer.jsp?cancerSeq=4757&menuSeq=4773&viewType=all&id=cancer_020115000000.
- Breast cancer white paper(유방암 백서). (2013, October). Korean breast cancer society. Retrieved February 01, 2014, from http://www.kbcs.or.kr/journal/file/2013_Breast_Cancer_Facts_and_Figures_updated.pdf.
- Cho, H. S. & Lee, K. M. (2001).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astectomy bras and breast prostheses(1).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1(3), 5-18.
- Cho, N. H., Shin, D. S., & Park, S. Y. (2009). Body image and quality of life by types and time-series of breast surgery. *Journal of Korea Academic Society of Womens Health*, 10(2), 19-35.
- Chung, S. H. & Lee, H. J. (2006). A research on the design preferences among and the development of functional clothing designs for disabled wome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6(6), 58-71.
- Ha, E. H. (2011). The influence of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on depressive symptoms of breast cancer patients.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6(4), 499-515.
- Han, M. O. & Park, J. G. (2014). Body image and physical suffering during radiotherapy in breast cancer patients following breast conserving operations. *Asian Oncol Nurs*, 14(3), 155-161.
- Hwang, E. K. & Yi, M. S. (2014).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breast cancer on hormone therap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4(111), 108-117.
- Hwang, J. S. (1998). the effects of body-cathexis and importance of meeting the ideal body image on

- clothing benefits sough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2(3), 293-302.
- Iwanami, K.(1998). Clothing and attire in disabled persons(身障者の衣服とおしゃれ). *Sen'i Gakkaishi*, 54(8), 272-275.
- Jeong, K. S. & Park, G. K. (2007). Relationships among body image, self-esteem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in mastectomy patients. *J Korean Oncol Nurs*, 7(1), 36-46.
- Kawabata, H. & Yatagai, M. (2012). Inconveniences and Consciousness: Clothes worn by breast cancer patients and survivors – QOL and body image analysis -. *Journal of Home Economics of Japan*, 63(2), 93-102.
- Kim, J. G. (2004). *Body as others, the body of the community(타자로서의 몸, 몸의 공동체)*, Seoul: Konkuk University Press.
- Kim, M. S. (2011). *Evaluation of Scoliotic Change in Patients with Mastectomy: Chest Wall Volume Analysis Using Multi-Detector Computed Tomography (MDCT)*. Unpublished master's thesis, WonGang University, Korea.
- Kim, S. H., Jun, E. Y., & Lee, W. H. (2006). The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in patients with breast cancer. *J Korean Oncol Nurs*, 6(2), 133-142.
- Kim, Y. L. (2010). The complexity of body image in post-mastectomy women and social support.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4(1), 129-147.
- Kang, H. W. (1996).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의상사회심리학)*, Kyounggido: KyoMoonSa.
- Kwon, E. J. & Yi, M. S. (2012). Distress and Quality of life in breast cancer survivor in Korea. *Asian Oncology Nursing*, 12(4), 289-296.
- Kown, G. D. (1999). A study on the body image(2) - Focusing on Body, self, and social realations(신체상에 관한 연구(2)- 신체, 자아, 사회 관계를 중심으로 -). *Journal of Social Science Reserach*, 6(3), 109-123.
- Kwon, K. S., Lee, G. S., & Han, Y. S. (1989). Study of clothing and it's construction for disable(지체 장애자의 의복연구 및 구성). *Research of Home Economics*, 5, 55-71.
- Lee, K. M. (2000). *A Study on Breast Shape for Middle Aged Women and Sizing Systems for the Mastectomy Brassiere and Prosthesis*. Unpublished docto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Lee, K. M. & KBS <생로병사의 비밀> 제작팀. KBS <Mysteries of the Human Body> production team (2010). *Breast Cancer(유방암)* Seoul: KyoungHyang Media.
- Lee, K. M. & Choi, H. S. (2001). A study on the wearing conditions of mastectomy bras and breast prosthesi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5(4), 697-706.
- Lee, I. J., Lee, K. H., & Shin, H. J. (2001). *Phychology of dress(의상심리)*, Kyounggido: KyoMoonSa.
- Lee, Y. S. (2007). Psychosocial experience in post-mastectomy wome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9(3), 99-124.
- Miyoshi, M. (2001). *Clothing Science Studies(복장 조형학)*, Tokyo: Bunka zoushi University.
- Park, G. J. & Choi, J. S. (2008). Body image and quality of life in women with mastectomy. *Asian Oncology Nursing*, 8(2), 86-92.
- Rlee, Y. J. & Lee, E., O. (2014). An exploratory study on clothing benefits sought by breast cancer survivors.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22(5), 823-833.
- Suzanne, M. M. (2003). Patient education for women being fitted for breast prostheses. *Clinical Journal of Oncology Nursing*, 7(2), 194-199.
- Yoo, M. S. & Lee, S. Y. (2010). The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body image after breast cancer questionnaire.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13(1), 65-81.
- Ymaguchi, M. & Tsutusui, H. (2001). Investigation of the effects of changes of the breast's position in the fuction of the shoulder complex. *The Shoulder Joint*, 25(3), 475-477.

원고접수: 2015.11.04

수정접수: 2015.12.16

게재확정: 2016.02.18